

외국에서 본 안전생활

김 주 범

우리 협회 토목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작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 한달 동안 딸이 사는 캐나다 서쪽의 아름다운 도시인 밴쿠버에 다녀왔다.

직업의식이란 할 수 없나 보다.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가까이에서 눈에 띄이는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들에 대하여서는 눈여겨 보게 되었다.

우선 나이 어린 손녀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들을 살펴 보니 나무 기둥이나 판들은 모가 나지 않게 둥글게 모따기를 하였고, 그네같은 연결 부위의 볼트나 너트도 모를 둥그스름하게 가공하였고, 너트를 잠그고 난 뒤 볼트가 나온 부위에는 비닐로 커버를 만들어 아이들이 상해를 입지 않게 예쁜 색깔에 곁을 씌워둔 것이며, 미끄럼틀은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 짓고, 표면의 나무리 등을 정성들여 다듬은 것 등은 그것을 만든 기술자들이 자기 아이들이 노는 기구로 알고 성의껏 만든 것이라 보아진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이 놀이터 바닥에 모래를 깔지 않고 잔 자갈을 깔 것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효용성이 모래보다 나왔다. 왜냐하면 우선 모래보다 알이 굵어 신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모래처럼 발이 푹푹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

었다. 그리고 유치원생 이하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안전수칙처럼 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음식점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의자를 갖다준다. 그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어야 한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림종이와 크레용을 주어 색칠하게 함으로써 예절을 배우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산을 떠는 것이, 다 이런 면에서 어른들이 챙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자동차에는 반드시 아이를 위한 안전의자를 갖추어야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상식이고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가 거기 앉아 벨트를 매야 마음이 놓이나 보다.

빅토리아로 가는 페리는 밴쿠버에서 1시간 40분이나 소요되며, 차는 340대를 싣고 사람은 1,360명이 타는 큰 배로서 이 안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두 곳에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놀이기구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섬세함을 볼 수 있었고 선착장에도 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대단하여 우리는 언제나 저 정도로 할까 하고 고민스러웠다.

밴쿠버 시내에서 가장 복잡한 주 간선도로인 Kings Way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휴일이나 야간에 하지 않고 근무시간중에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포장공사중의 혼잡한 교통을 막기 위하여 상당수의 교통정리원이 동원되어 일사불란하게 차를 유도해 주었다. 의외로 여자 요원이 많이 보였다.

작업광경은 서두름이 없이 차분하게 규정에 맞추어 일하는 것이 보기에 안전감이 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이 밤에 서둘러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일에 비해 안전시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덧씌우기 공사가 끝난 뒤 그 위를 지나가보니 정말 잘 되었다 싶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빨리빨리 하면서 해야 할 것을, 빼먹지 않고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건축현장에서 느낀 것으로는, 우리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려면 공용도로를 파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 예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공용도로는 손대지 못하게 부지 내에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성 콘크리트 블럭을 통행에 지장이 없이 설치하고 그 블럭에 기둥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다한 다음 가시설로 사용하게끔 하고, 낙하물 방지시설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 보겠다.

건물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적어도 일주일을 기다리고 벽체거푸집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내에서 너무 빨리 하는 것만 보다가 제대로 하는 것을 보니 저렇게 느리게 하여 언제 끝낼까 하고 내가 답답해 하였다. 이

렇게 우리 기술자들이 잘못 몰들어 있으니 언제 이 버릇을 고칠까 하고 나를 반성해 본다.

록기산맥이 있는 쪽으로 가는 도중 험준한 협곡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직 4월이라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일부 녹기를 시작한다. 이런 곳에서는 눈사태가 많은 지역이라 특수구조물로 눈사태가 도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산비탈에 맞추어 티널형 안전유도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도로기능과 눈사태의 안전유도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한 구조물이라 특이하다고 느꼈다.

또 한 곳을 지나는데 깊은 계곡을 지나는 자그마한 교량을 보수하고 있었는데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었는에도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간이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그 신호에 의하여 운행하는 그곳 사람들의 교통질서에 놀라운 마음이다. 교통질서 잘 지키기는 새벽녘에 산책나가며 봐도 마찬가지이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경관이 좋은 곳이 가끔 나타나는데 어김없이 View Point라는 표식이 나타나고 보고 갈 수 있게 휴식터를 만들었는데 이 지점은 경관도 보고 장거리 운행 도중 잠깐 내려 허리운동도 하고 바깥공기도 마시는 피로 회복의 이중효과를 줌으로써 안전운행을 하게 하는 노력이 깃들여져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었다.

이 나라는 원시림으로 덮힌 나라라 길 곳곳에 동물이 지나가는 곳이란 표지판이 있다. 이런 곳은 속도를 줄여 주의깊게 시야를 살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습관화되어 몸에 배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이곳 사람들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몸에 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보겠으며, 이러한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또는 주변에서 익히게끔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